

# S

## MAGAZINE

CULTURE/STYLE/PEOPLE

November 3-4, 2013. no.347. sunday.joongang.co.kr



ISSUE 설치 작가 양혜규  
향신료의 예술

중일SUNDAY

제347호 11월 3일~4일 값 1000원  
<http://sunday.joongang.co.kr>



9 771976 026400 45  
ISSN 1976-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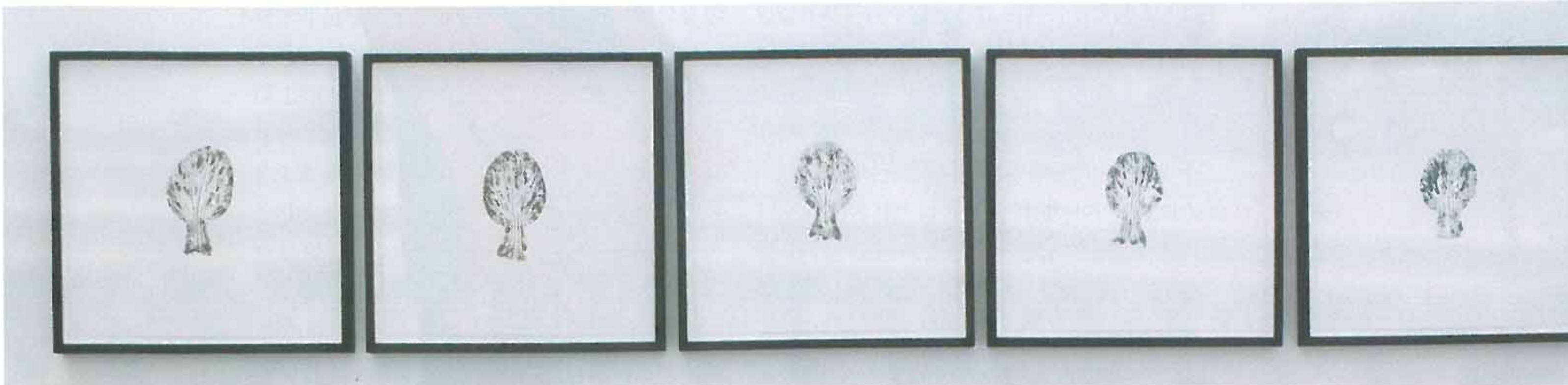


'해가 지지 않는' 작가 양혜규, 싱가포르서 종이 예술에 도전

# “역사와 문화 배어있는 향신료 종이에 담아 작품으로 승화”

1 향신지(香辛紙:2012), 향신료 스크린 프린트, STPI 수제 향신 종이, 20가지 종류의 향신료와 약초 20점, 각 41 x 41 cm

2 야채 판화-청경채 #2(2012), 릴리프 프린트, 순면 종이, 수용성 잉크, 청경채 10점, 각 35 x 3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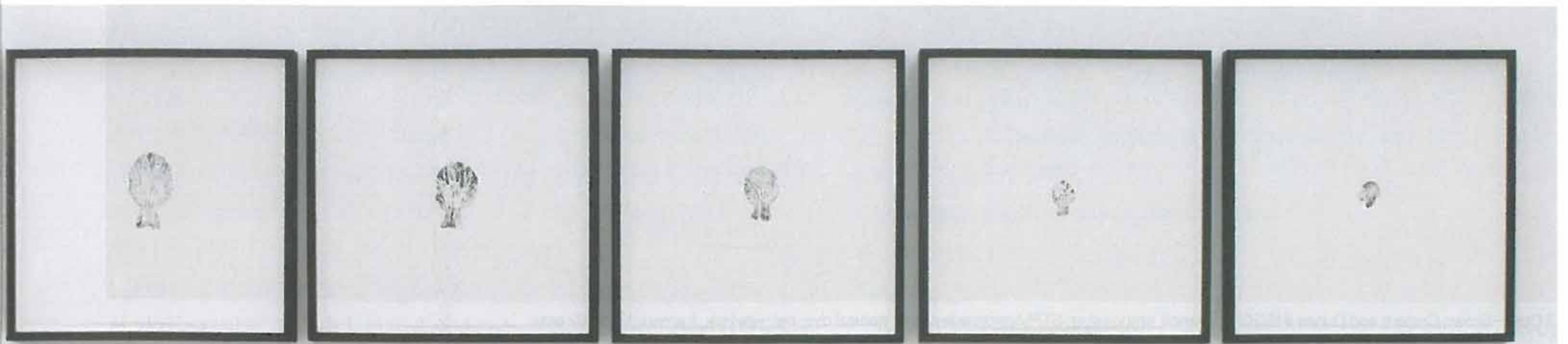
1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였던 양혜규(42)는 지금 ‘해가 지지 않는’ 작가다. 10월 들어 전 세계 4곳에서 잇따라 전시를 시작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조각 스튜디오(10월 5일~12월 20일)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베르겐 쿤스트할(10월 18일~12월 22일), 미국 시애틀 헨리 아트 갤러리(10월 19일~2014년 2월 9일),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10월 24일~11월 23일)까지 괴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STPI)에서는 지금까지의 설치 작업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평면 작업을 선보였다. 블라인드·전구·방울 등을 이용해 보는 이에 게 각자의 일상과 과거의 추억이 전시 현장의 느낌과 뒤섞이는 묘한 체험을 선사하던 그가 이번에는 종이에 야채를 올려놓고 판화처럼 눌러 찍어내는가 하면 펄프에 다채로운 향신료를 섞어 ‘양념 종이’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 각종 식재료와 양념을 작품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은 참신한 재료에 대한 갈증과 그것을 자신의 문법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작가의 내공일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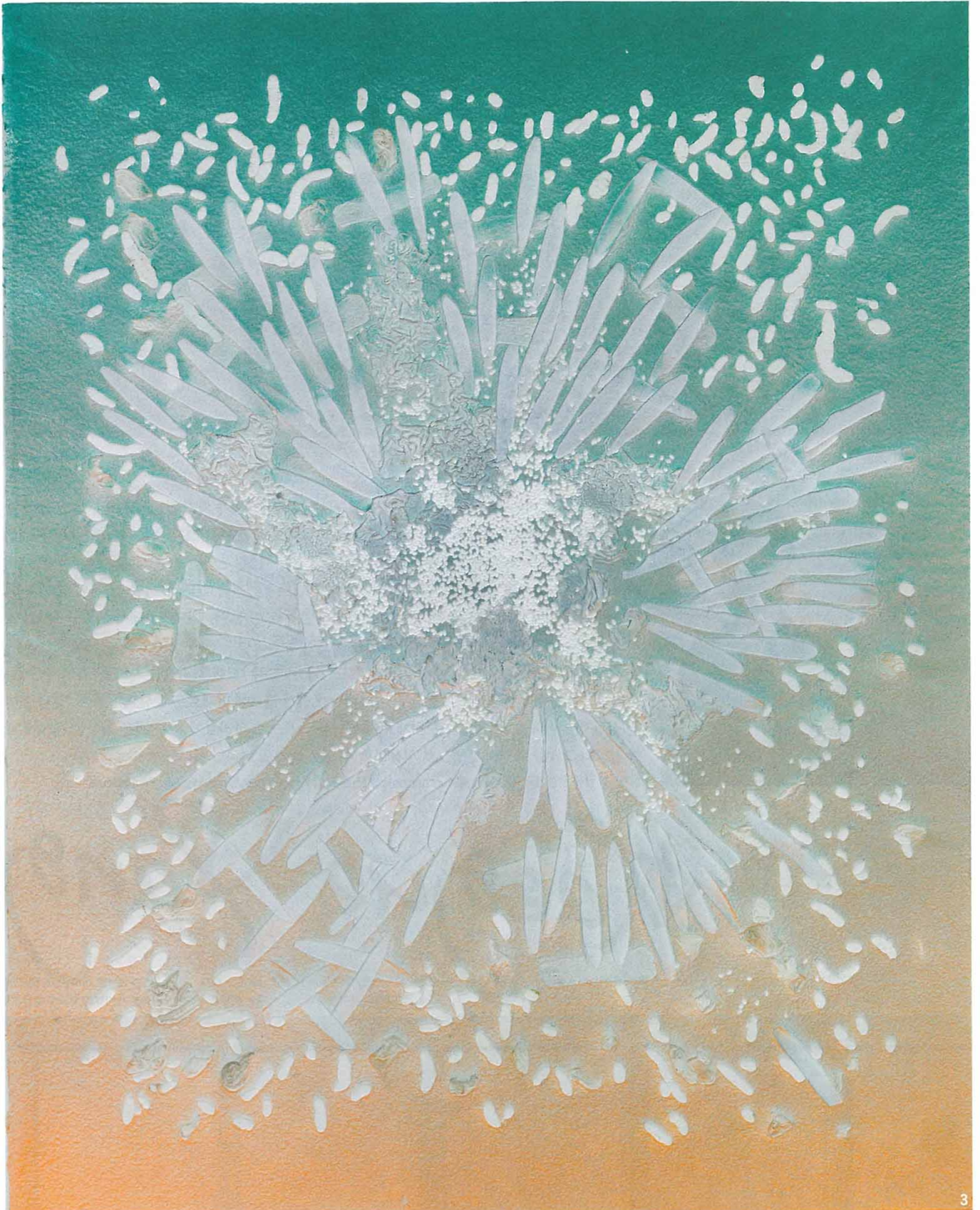
싱가포르글·사진 정형모 기자 hyung@joongang.co.kr, 사진 STPI©Haegue Yang/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

Haegue Yang



2





3 Color-Brown Craters and Dunes #15(2012), Stencil, embossing, STPI handmade paper, natural dye, cel-vinyl ink, framed, 127 x 102 cm



## 양혜규(b. 1971)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6년 독일로 이주해 현재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작가로 선정돼 '응결(Condensation)'을 선보였고 이후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미술관(2010), 미국 뉴욕 뉴뮤지엄(2010), 독일 카셀 도큐멘타(201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2013) 등에서 대규모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국문 작품집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생성하는 멜랑콜리』(2009), 아스펜 미술관과 옥스퍼드 미술관이 공동발간한 영문도록 『중력을 거스른 야성』(2011)이 있다. 국제갤러리 소속.

양혜규 작가의 STPI 전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은 공간을 다뤄온 작가가 새로운 스타일의 평면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다. 작가에게 그런 요구를 관철시킨 STPI의 역량도 궁금해졌다. 작가의 숨겨진 면모를 이끌어 내려는 기관과 그 의도에 동참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기투합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 -STPI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나.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황당했다. 감이 안 왔다. 웹사이트를 봐도 마찬가지였다. 참여 작가 면면을 보면서 감을 잡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한동안 흐지부지됐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이곳에서 한 달간 머물며 새 작품을 시작했다.

“예술가의 작업이라는 게 일단 세팅이 되면 능률이 높아진다. 안정 속에서 야성을 갖기란 쉽지 않다. 레지던시도 잘 안 들어가게 된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오면서 더 참신한 재료를 찾고 일하는 방식도 쇄신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던 참이었다. 2013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자고 2011년에 다짐했다. STPI의 제안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고 난 모험을 해야 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았나.

“기본 스테디는 해왔지만 변변치 않았다. 첫날부터 무작정 시내를 돌아다녔다. 지원팀에게 데려가고 싶은 곳으로 날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질문하고 들었다. 고급 정보가 필요했다. 빨리 오버뷰 할 수 있고 작업을 시작할 만한 실마리를 찾아내야 했다. 그러다가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 등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향신료를 보게 됐다. 사실 내가 먹을 걸 사러갔던 참이었다(웃음).”

-원래 작품에 냄새를 많이 활용하지 않나. 2009년 베니스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물에 풀어 물감처럼 쓰려고 했는데 녹지 않는 물질이 많았다. 그때부터 작업실은 화학 실험실이 됐다. STPI에 종이 제작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양혜규표 양념 종이’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냄새가 진동해 모두 알레르기 기침으로 엄청 고생했다.”

향신료는 동남아시아·인도·동북아프리카·유럽을 잇는 가장 사치스러운 교역 상품이었다. 향신료를 독점하기 위해 외교 갈등이 생겼고 이는 식민지를 찾기 위한 탐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도시로서 오랜 기간 중국·말레이시아·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소박함에 인쇄된 정직함’이라는 부제가 붙은 작가의 이번 전시는 크게 여섯 가지 스타일로 구분된다. 펄프에 생강·고추·후추·가람 마살라·겨자·카다몬·정향·울금·계피 등 20종의 향신료를 섞고 포장지에 찍힌 원산지 표기까지

담아낸 ‘향신지’ 시리즈, 8종류의 사포에 20종의 향신료를 보름달처럼 뿌려 만든 ‘향신월’ 시리즈가 이 작업의 결과다. 후속작 ‘양념수프지’는 김치 라면을 포함한 인스턴트라면 5종의 수프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작가의 유머가 번득이는 작품이다. ‘음월삼곡(吟月三曲)’은 세계 곳곳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음료 커피·차·코코아를 주재료로 삼았다. 또 젖은 펄프 위에 야채나 한방약초 등을 올려놓고 일반 종이를 덮은 뒤 프레스로 눌러 생즙으로 찍어낸 요철 판화 시리즈, 종이 위에 야채 등을 썰면서 생긴 칼자국과 그 즙이 만들어낸 흔적이 담긴 ‘도마 판화’ 시리즈, 다각형 물체를 종이 위에 놓고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동선의 이동을 보여주는 2007년부터 시작한 ‘비(非) 접기’ 시리즈도 볼 수 있다(이중 작업의 부산물로 건졌다는 ‘도마 판화’ 시리즈를 작가는 ‘양혜규스러운 작품’이라고 만족스러워 했다).

-이곳이 다른 곳과 달랐던 점은.

“한 작가의 작업을 돕는 12명 지원팀의 존재다. 모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내가 생각한 것, 생각할 것, 해야 할 일을 한 몸처럼 해주었다. 국적도 제각각이었는데 각자 자신이 잘 아는 곳에서 온갖 재료를 종류별로, 그것도 값싸게(!) 구해 왔다. 덕분에 나는 두르가 여신(시바신의 부인으로 팔이 8개 달려 있다)이 된 느낌이었다. STPI도 나도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기에 정말 초시계를 놓고 작업할 정도였다. 그런 만큼 그들의 공이 컸다.”

-네 곳에서 잇따라 전시를 개막했다. 지역적으로 차별성이 있나.

“싱가포르와 글래스고는 원래 일정보다 뒤로 밀려 10월에 개막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역보다 미술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비상업적 공간을 중요시한다.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면 지역성은 절로 보인다. 어느 기관이나 지역 공동체와 연결돼 있고 직간접으로 소통하는 작가군과 이를 서포팅하는 지원세력이 있다. 내부를 이해하면 외부는 절로 알게 된다. 나는 아티스트와 커뮤니티 위주로 돌아가는 곳을 좋아한다. 마켓이 없고 예산은 척박해도 뭔가 순수하고 애뜻한 것에 끌린다.”

-전시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내 전시를 맡게 된 큐레이터들한테 말한다. 저랑 전시하시려면 2년 동안 제가 하는 전시는 다 보러 오셔야 된다고. 1년, 반년이 제겐 너무 크기 때문에 숙제처럼 다 와서 봐야 한다고. 안 오면 앙심 품는 게 내 역할이다(웃음). 그렇게 전시장에서 서로들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얼굴 박치기’가 중요한 이유다.”

-전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

“난 내 모든 전시에 항상 90점 이상 준다.”

-90점 이상 받을 때까지 준비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바로 그거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작가가 이런 말을 왜 하나? 이런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 두 가지뿐이다.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고생을 덜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거나.”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많은 작가가 내러티브를 생각한다. 동그랗게 만들어서 기승전결 구성을 한다. 나는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컨셉추얼한 작가다. 물론 나도 내러티브를 생각 안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하면 단 한 개의 동그란 내러티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에게 예술이란.

“아티스트의 작품은 물건이 아니다. 작품을 산다는 것은 작가의 철학을, 생각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와 똑 같다. 작가는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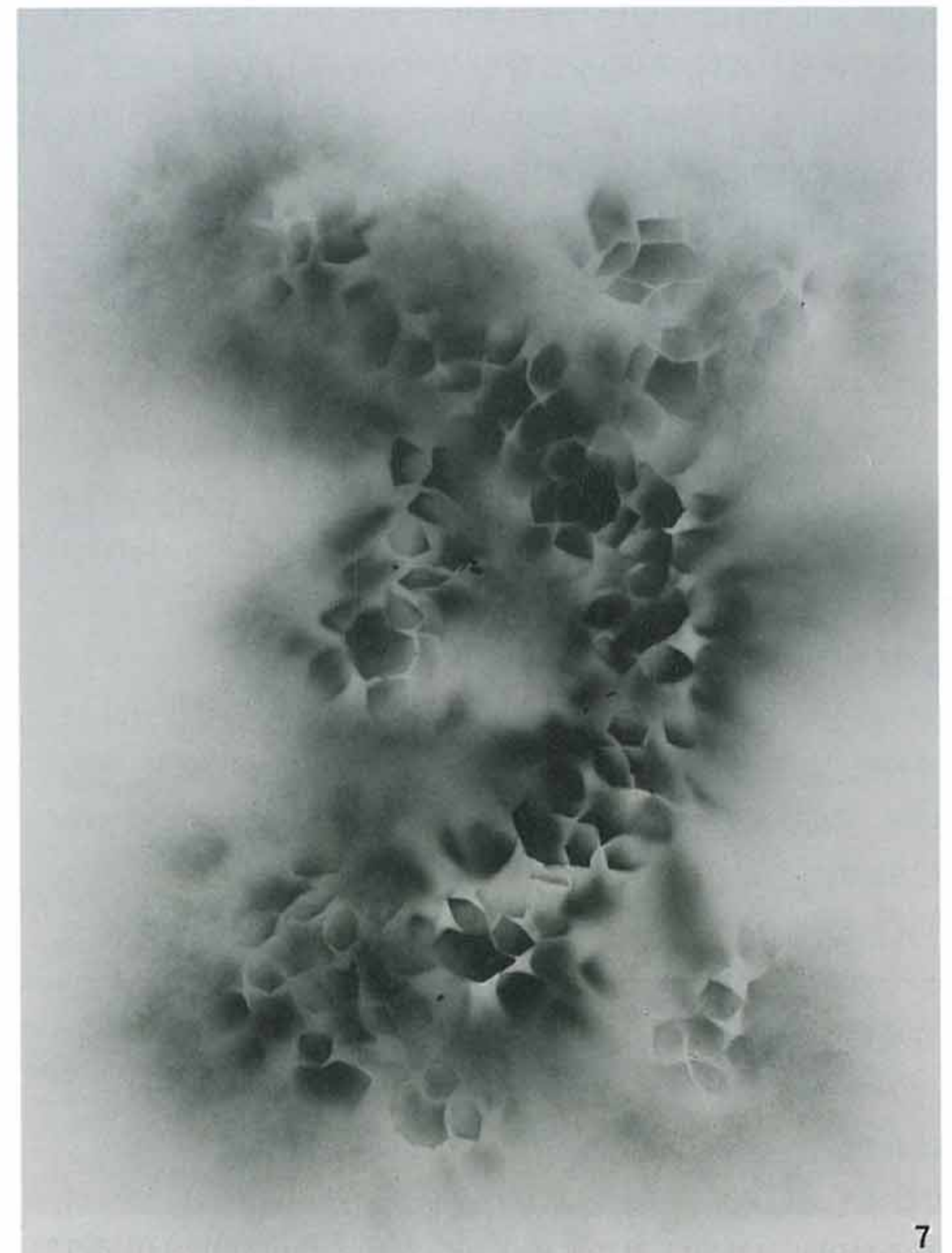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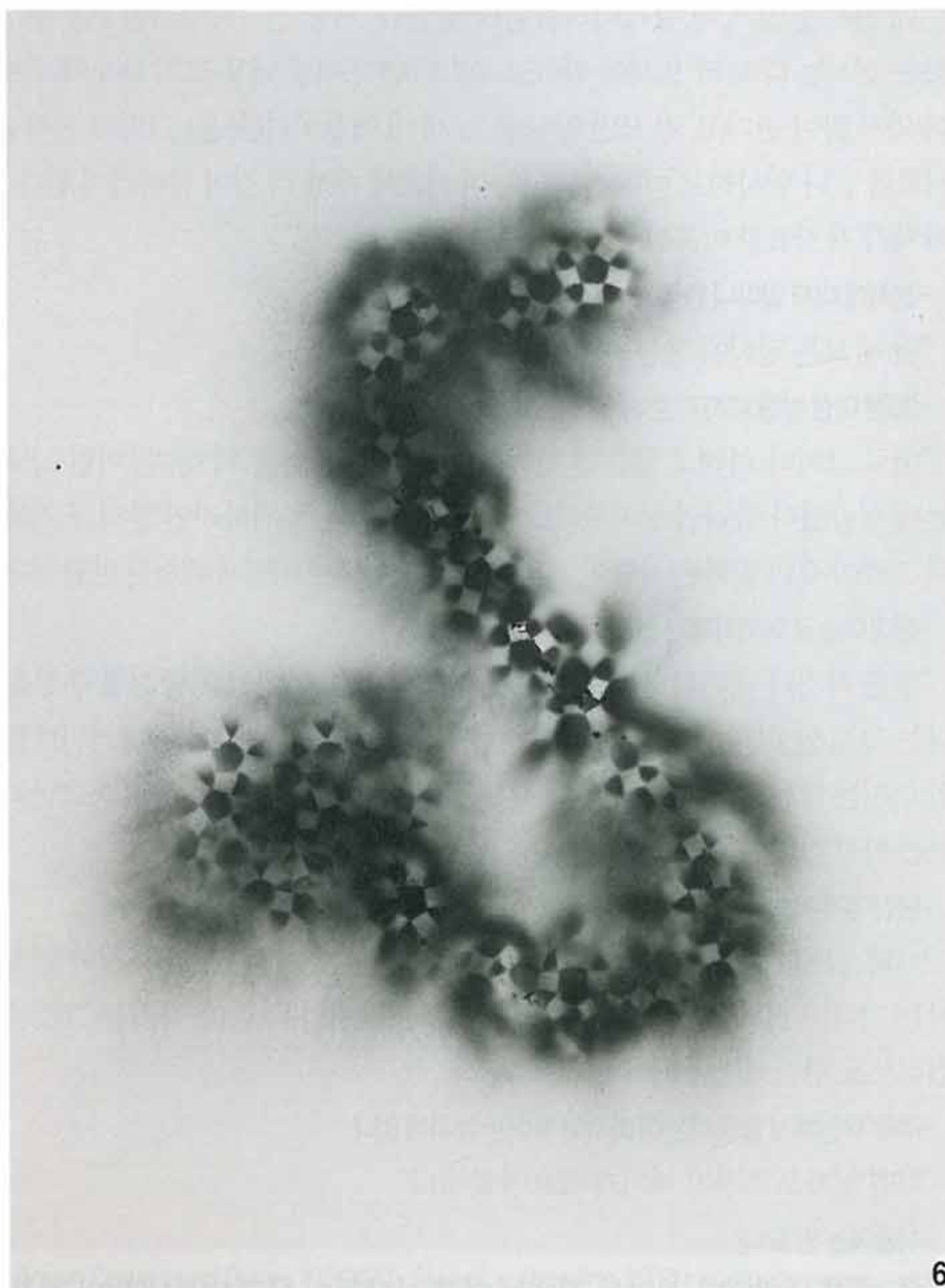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데 아시아 투어는 계획에 없나.

“이번 싱가포르전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에는 안 오나.

“못 간 지 오래됐다. 부암동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마당에 심어놓은 들깨를 타작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STPI) 에미 유 관장

## “최고 작가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프린트 아트 메카 만드는 게 내 꿈”

2002년 개관한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STPI)는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예술기관이다. 미국에서 로이 리히텐슈타인·로버트 라우센 버그·재스퍼 존스·데이비드 호크니·프랑크 스텔라 등의 판화를 만든 거장 케네스 타일러가 자신의 판화 공방을 고스란히 넘긴 것이 모태가 됐다. 판화 제작을 위한 500t 짜리 프레스를 비롯해 펄프 제작 시스템과 판화 제작 관련 기구는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갤러리와 작가 스튜디오 및 숙소까지 갖추고 있어 기획부터 제작, 전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STPI 창립 멤버로 일하기 시작해 2009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 에미 유(Emi Yu·45·사진) 관장은 “세계적인 작가를 계속 초청해 그들이 거의 해보지 않은 종이 및 판화 작업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이끌어내고 STPI가 프린트 아트의 메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소개했다.

STPI는 1년에 6명의 작가를 초청한다. 1명은 싱가포르, 1명은 서양, 4명은 아시아 작가다. 한국에서는 전광영·서도호 작가 등이 한 달씩 머물며 색다른 종이 작업을 체험했다. 이번 양혜규 작가는 STPI가 매년 한 명의 작가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처음 시작한 ‘플랫폼’ 프로젝트의 첫 수혜자이기도 하다.

“실력 있고 주관이 뚜렷한 작가를 모셔오는 일이 가장 어렵죠. 왜 판화 작업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려요. 그래도 머리가 되고 손이 되는 저희만의 일심동체 지원 시스템이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다들 말씀해 주십니다.”

유 관장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현대 미술을 공부했다. 싱가포르 언론인과 결혼 후에는 NYU로 유학, 예술경영까지 섭렵했다. 숙명여대에 정영양자수박물관을 세운 정영양 박사의 딸이다. 2007년부터 에르메스 재단 프로그램 디렉터로도 일하면서 프랑스 문화 전파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슈발리에 훈장도 받았다.

STPI는 정부 기관이지만 후원액은 전체 예산의 25%에 그쳐 부족한 부분은 작품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해야 한다. 세계 최대 최고의 미술장터인 아트 바젤에 올해 처음 부스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이 감안돼서였다. 유 관장 역시 올해부터 아트 바젤 홍콩의 셀렉션 커미티 멤버이자 아트 바젤 조인트 커미티 멤버가 되어 세계 미술 시장에서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트 리뷰가 최근 선정한 ‘미술계 파워맨 100’에 94위가 한국의 김선정, 95위가 싱가포르의 유진 탕이 올랐네요. 아시아 사람들이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서구에서 아시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4 양념 판화 -Anise Star Natural(2012), Embossing, natural dye, STPI handmade paper, star anise, framed, 168 x 132 cm  
5 양념 판화 -Anise Spiral Natural(2012), Embossing, natural dye, STPI handmade paper, star anise, framed, 165 x 132 cm  
6 비(非)-접기-Dragged Geometry #1(2012), Stencil, white paper, spray paint, framed, 123 x 88 cm  
7 비(非)-접기-Geometric Tipping #39(2013), Stencil, white paper, spray paint, framed, 178 x 123 cm  
8 비(非)-접기 -우주적인 폭발 #7(2012), 스텔실, 흑/백 종이, 스프레이 페인트, 2점, 각 123 x 87.5 cm